

# 2023년 문학과 영상학회 봄 학술대회

## “New Asian wave” in global cinema

날짜: 5월 20일(토)

장소: 부산 영화의 전당

취지문:

아시아 영화의 특색은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영화의 일부분이 되었다. 이런 전개 과정은 199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 부상한 “아시아계 아메리칸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성립과 맞닿아 있다. <조이 럭 클럽>을 필두로 <크레이지 리치 아시안>에 이르는 일련의 변모는 아시아 영화의 의미에 대한 근본 질문을 재고하게 만들었다.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태평양 시대가 열어낸 아시아 영화의 변화는 유럽의 시네필 운동과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술한 굴곡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. 홍콩 영화와 대만 영화의 부흥과 침체, 인도 볼리우드와 중국의 SF영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질성,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류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 영화의 약진은 아시아 영화의 문제를 아시아라는 지역성의 경계에 얽매어 고찰하는 평범한 인식을 거부하고 있다. 과거의 영화사를 돌아보는 회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, “지금-여기”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아시아 영화를 실시간으로 고찰할 필요가 긴급하게 제기되고 있다. 이런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2023년 한국문학과영상학회 봄 학술대회는 지금, 현재 생동 중인 아시아 영화를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, 아시아 영화의 양상과 정의를 어떻게 묘파해야 할지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고자 한다.

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첨부하는 [발표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8일\(일\)까지 학회대표메일 \(litfilm2011@gmail.com\)](#)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

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문학과영상학회 드림